

♥♥민쌤 서울 재수 합격♥♥

<p>제 소개</p>	<p>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현장 경력없이 18학년도, 19학년도 시험에 응시했고, 2년동안 모두 민쌤 강의 를 들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임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선배와의 교류도 딱히 없어 임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제가 선택한 민쌤만을 믿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p> <p>현장경력없이 임용에 뛰어들 것이 처음에는 매우 걱정되고 염려스러웠는데 이번 연수에 가보니 저와 같 이 무경력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p> <p>초수에는 1차에서 -3점으로 불합격하였고, 재수에서는 1차에서 +2점, 2차에서는 +1.XX로 합격하였습니다. 초수에는 올인하였고, 재수에서는 6월 말일까지 카페 평일 마감 알바를 병행하면서 하였습니다.</p> <p>여기까지 전반적인 제 상황이며, 제가 앞으로 쓸 내용은 대부분 재수 때 했던 방법입니다 :-)</p>
<p>생활습관</p>	<p>저는 잠이 많고, 평일에는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기 때문에 집은 잠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바로 배제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독서실과 도서관을 시험 삼아 다녀보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몇 주를 다녀 본 결과 도서관이 가장 맞다고 판단하여 2년 동안 모두 도서관에서 공부하였습니다.</p> <p>아침 8시30분까지 도서관에 도착하여 저녁 6시까지 하고, 초수 때는 저녁 이후 시간을 운동 및 자유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이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네요. 스파르타 식은 저에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저녁시간을 자유롭게 보낸 것인데 이 시간을 활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재수 때는 5시부터 10시까지 알바를 하여 거의 공부를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재수 때는 몇 시간의 알바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수하면서 이미 초수 때 공부했어~ 하면서 루즈해지기도 해서 오히려 알바 가면서 기분전환도 될 겸 좋았습니다.)</p> <p>알바를 관두고 나서는 저녁 시간도 공부 시간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녁을 집에서 먹기 때문에 저녁 공부는 거의 집에서 했습니다. 집에서는 긴장도 풀리고, 도서관보다 비교적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법이나 읽기 싫은 해지서 공부 시간으로 활용했어요.</p>
<p>공부방법</p>	<p>개론</p> <p>일~화요일 3일로 나눠서 강의를 모두 듣고 토요일까지 복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수, 재수시기 모두 개론강의 때는 강의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논술, 해지서, 고시문 등등 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때 저는 암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해를 하기 위해 계속 읽었습니다.)</p> <p>개론반과 마찬가지로 일~화까지 나눠서 강의를 듣고 각론 강의를 복습하며 개론 강의를 함께 복습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운동·건강 1주차 강의를 들으면서 개론 1주차인 발달을 함께 공부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상이나 놀이같이 범위가 넓은 때는 2주에 나눠 복습하였습니다. (이 때도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읽기를 하였어요. 개론/ 각론을 꾸준히 이해하며 읽는 것이 문풀시기 즈음 암기를 시작하면서 빛을 발하게 돼요!)</p> <p>각론부터 해지서와 고시문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지서는 밴드로 짝스터디를 구성하여 월~금까지 분량을 정하여 읽은 후 하루에 3문제를 서로 내고 푼 것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처음에 해지서를 읽을 때는 정말 읽히지 않고, 읽으면서도 좋았는데 정말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읽다보면 어느 덧 이해하는 시기가 와요! 정말로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니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일정량을 꾸준히 읽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p> <p>#의사소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날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에 의하면 유아는 (1)력과 (2)이 모두 급증하는 시기이지만, (2)는 (1)보다 몇 배는 적다. 2.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의 지도지침에 제시된 만3세에게 동화를 읽어줄 때 교사의 지도방법은? 3.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의 지도지침에 제시된 유아가 유행어나 속어 사용 시 교사의 지도방법은?

고시문은 처음 시작할 때는 각론강의에 맞춰서 했어요. 예를 들어 신체운동·건강을 할 때 월요일은 신체 인식하기, 화요일은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내용범주를 금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주에 또 신체강의 이기 때문에 지난 주에 했던 것을 반복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술경험 강의에 들어가면 월요일은 아름다움찾아보기 화요일은 예술적 표현하기 ...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하면서 지난 주 고시문 진도인 신체운동·건강 영역을 덧붙여서 같이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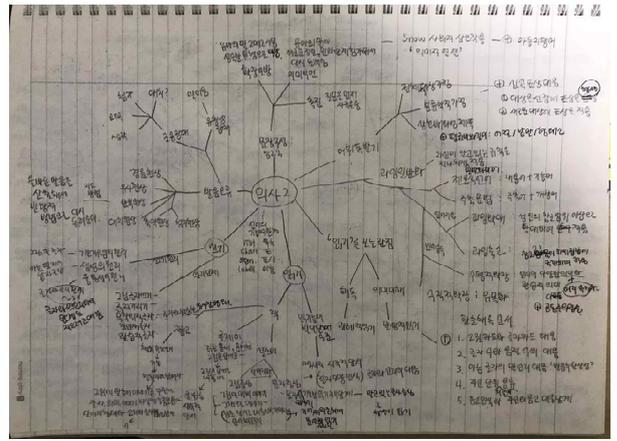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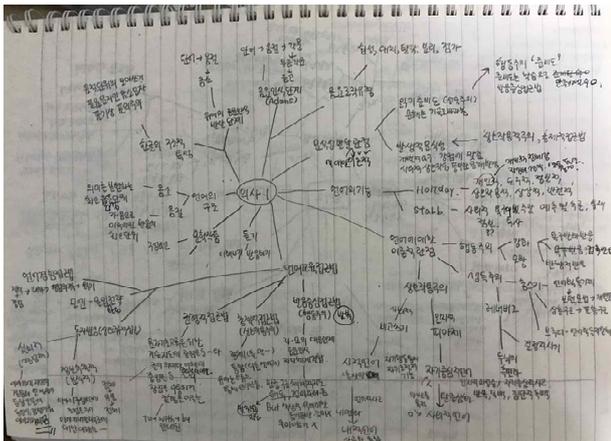
이렇게 하면 고시문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시문도 처음에 할 때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 했어요. 고시문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문풀반 부터는 하루에 한 영역씩 계속 돌렸 습니다.

문풀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밀리지 않고 강의 전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저의 초수와 재수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풀 때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는 것입니다. 초수 때는 문제가 밀려 그냥 강의에서 다뤄주시는 문제만 풀었는데 이것도 강의를 듣고 푸는 것이여서 완전히 제 껍로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 접근방식을 알고, 답을 알고 푸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재수 때는 꼭 수업 전에 문제를 모두 풀고 강의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문제 수가 많아서 하루 안에 풀기 어려워서 하루에 5~6장 정도씩 나누어서 월~토까지 풀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어쩔 때는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개·각론과 마찬가지로 일~화까지는 강의를 듣고 수~토는 복습을 하면서 월~토는 다음주 강의의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푼 것이지요.

이 때 제가 추가로 했던 것은 백지쓰기였습니다. 백지쓰기라고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래 사진 첨부한 것과 같이 큰 타이틀만 적고 이에 대한 제 머릿속에 있는 설명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백지쓰기를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개념은 무엇인지, 또 빼먹고 있는 개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았습니다. (백지쓰기는 영역별로 2번씩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슬슬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단
편



그래서 이때부터 조그만한 수첩을 하나 사서 암기할 내용을 수첩에 적어두고 정말 시도때도 없이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때나 아침에 버스타고 도서관에 올 때 등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개념암기 뿐만 아니라 해지서의 지도지침 및 유의사항도 적어서 다녔어요. 시간잡고 읽었지만 들어오지 않던 해지서 내용들이 수첩에 적어두고 틈틈이 읽을 때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해지)

신체운동·건강 > 신체인식하기 >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특정장애의 유형을 이해 → 자조를 수행하거나 대체 감각
 자료를 제공하여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신체운동·건강 >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 신체조절하기
장애나 발달지체로 인해 신체조절과 운동에 어려움을
가진 유아의 경우 → 시범을 보이거나 흥미를 유발해
 가능한 다양한 움직임의 경험하고 환용에 참여하도록.

신체운동·건강 > 신체인식하기 >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특정장애의 유형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계로 보고 듣고 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신체적 능력은 가진 사람들과(준중등)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ibis

(사상)

문제해결-민중기
 → 유아기는 어느 일정한 시기동안 특정 요소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이 나타나 이따 관련된 능력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자연탐구)

공간능력 ①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능력 ② 자연현상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해하는 능력

공간적각각 : 대상에 가장적응능력을
 여러 가지로 그려볼 수 있는 능력

요즘의 조판과 문체박판 단판 (Clements)
 전장수단제 각각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별개의 도형서를
 조합하기단계. 각자의 도형으로 구성요소를 나타내기때서
 ibis
 그림만으로도. 하나씩 모양을 나타내기위해
 여러 개의 도형을 연결하여 서를

모
고

초수 때는 직영상반을 신청해서 직강처럼 학원에서 풀고 해설강의를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노량진을 다녀오면 한 주의 피곤이 몰려와서 일요일 오전은 거의 풀고 쉬고 오후에 공부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앞으로의 일주일도 힘들기 때문에 일요일은 보상의 날처럼 융통성있게 활용했어요. 이렇게 토,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에는 A형, 화요일에는 B형을 다시 복습하면서 부족한 점들을 파악했어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절~~대 모의고사 점수로 좌절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2년동안 공부하면서 합격하신 분들이 “모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모고는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또 나에게 어떤 점이 부족한 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모고를 통해 “내가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을 알게 되었구나”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것 남은 기간을 견뎌내는 데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점수라는 숫자보다 나에게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세요)

재수 때는 초수와 달리 한 모고만 푼다는 것에 괜히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 모고를 하나 더 신청해서 2개의 모고를 병행했습니다. 재수 때는 인강으로 했기 때문에 민쌤모고는 일요일에 뿔아서 다 풀고 월요일에 A형 해설강의와 복습, 화요일에 B형 해설강의와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님의 모고는 서브가 되어 목요일에 다 풀고 금요일에 모르는 부분만 해설강의 들었어요. 이 모고는 서브이기 때문에 민쌤강의처럼 다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틀린 것, 모르는 부분만 스킵해서 들었습니다. (모고는 사실 하나에 더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차이구요!)

저는 모의고사도 여러 번 보고 풀었습니다. 한 회당 3번정도는 봤어요. 첫 번째는 시간에 맞춰 풀고, 두 번째는 사실 다시 풀기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보지 못한 지문의 내용 등 답이 될 만한 힌트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서 풀었고, 세 번째에는 제가 틀렸던 문제나, 얻어걸린 문제는 문제 유형, 힌트 등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면 그 문제 나온 답과 관련된 개념, 설명 등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모고강의가 끝나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 하루에 2회씩 복습하면서 2주일동안 2번씩 더 봤어요. 이 때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듯한 정도로 보았습니다.

기출: 개·각론 진도에 맞춰서 기출강의를 병행했어요. 기출은 강의도 많아서 정말 밀리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달강의를 일~화까지 들었으면 수~금동안 개념복습, 토일은 발달기출문제, 그 다음 주에 사상강의를 들으며 발달기출을 들은 것이지요. 이렇게 진도에 맞춰 기출을 다 듣고, 연도별로 문제를 다 뿔아 시간에 맞춰 풀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은근 풀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때는 하루에 한 회가 아니라 하루에 2018A형 풀고 분석, 그 다음 날 2018B형 풀고 분석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기출분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인데, 초수 때는 분석을 잘 몰라서 그냥 풀기만 했고 재수 때는 나름 분석을 한다고 지문 속 힌트, 설명 그리고 답으로 나온 용어의 개념 등을 그대로 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과 관련된 용어, 설명 등 더 추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보면 공부범위의 폭이 넓어지게 돼요! 단순히 여태 나온 기출을 공부한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논술: 논술은 초수 때 민쌤 패키지를 들으면서 3M책과 윤승현선생님 강의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밴드 짝스터디를 구해 일주일에 기출 2회를 쓰고 서로 첨삭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논술을 썼고, 2018학년도에 앱스타인 용어와 설명을 모두 썼음에도 14점이라는 점수가 나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한 논술 공부법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논술은 명확한 틀을 정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확한 틀이라는 것이 만능틀을 뜻 하는 것은 아니고, 글의 체계를 통일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은 간단하게 100자 이내로 쓰는 연습을 하고, 본론은 각 문장마다 문장 형식을 맞춰 깔끔하게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의 여러 개의 문제점을 찾아 논하는 것이면 첫째, ~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사례의

기
타

~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로 해결할 수 있다. 와 같이 둘째, 셋째도 통일성있게 논술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쉬워보여도 은근 내가 쓴 글을 보면 문장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교과로서의 태도 등 정리해주는 말로 글을 마무리 했어요. 사실 저도 논술은 자신이 없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최대한 위의 설명한 틀을 가지고 쓰려고 노력했어요.

법: 법은 초수, 재수 모두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은 혼자 하는 것보다 밴드스터디를 활용하여 하루에 범위를 정해 빈 칸 10개를 내어 문제풀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1. "(1)"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4. "(2)"란 (1)이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6. "(3)"란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4)"이란 (1)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8. "(5)"이란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1)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6)"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

초수 때는 커리를 따라가는 데 벽차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다면, 재수 때는 "기초를 튼튼히 하자.",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딱 이 2가지를 항상 명심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데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공부할 때 가속도가 붙게 되고,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분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 또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구심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잘하고 있음에도 괜히 공부 방법을 바꿔본다거나, 생활 방식에 변화를 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스스로에게 "많이 힘들지? 조금만 힘내자!" 라고 응원해주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부터 앞으로 나의 수험 생활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닐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이를 명심하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수험생활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저는 슬럼프가 오는 것 같으면 아예 하루를 버리기 보다는 오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꾸역꾸역 잘 마치고 오후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분명 계획한 공부의 양만큼 도달하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환기가 오히려 다음 날 공부를 더 잘되게 도와주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를 마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극복 방법을 하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임용카페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강생의 단점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초수 때는 아무리 익명이고 온라인이지만 카페에 글 올리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재수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모르는 것을 올리고, 또 다른 선생님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기도 했지요. 모르는 것을 혼자 끙끙 앓거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카페에 질문하여 꼭 궁금한 점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붙어서 이렇게 합격수기를 남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화나고 짜증나도 삭히고 묵묵히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응원하며 열심히 달리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